

동래한량춤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2006.12.27지정)



예로부터 동래는 천연온천이 있는 관광지역으로 각종 놀이문화가 풍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춤을 중심으로 한 풍류꾼들의 예기(藝技)는 일반사람들의 연희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예인으로서 예술적 수준이었다. 특히 동래는 가창(歌唱)이나 음율(音律)보다 춤꾼이 더 성하였고 명무들도 많아서 동래마을이 춤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동래는 동래관아(東萊官衙)에 소속된 아전들과 천연 온천으로 인한 한량들의 방놀음, 그리고 동래권번에 출입하는 풍류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무악을 즐기는 예향 지역이다.

특히 동래 한량무는 탈놀음인 동래야류 양반과장의 덧배기춤과 사랑방의 멋쟁이 한량들에 의해 연희 되었던 입춤 형식의 굿거리 춤이 더해진 춤이다.

특징적 춤사위는 도포자락 놀리는사위, 부채퍼는사위, 부채메고 어루는사위, 연풍대사위 등이다. 복식은 양반들의 출입복인 바지저고리에 도포를 착용한다. 반주음악은 삼현육각 또는 사물악기의 굿거리장단에 구음을 엮어 연주한다.

예능보유자 및 전승자

예능보유자 | 김진홍

이 수 자 | 이동재, 박성호, 박상용, 김기원, 김갑용, 전승환
전 수 생 | 배영호, 김동오, 정재성, 이종태

[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

모집요강

- 접수기간 : 상반기 2월 / 하반기 3월
- 수강기간 : 3월~8월 / 8월 ~ 익년도 2월

강좌안내

도살풀이춤반 / 동래한량춤 / 동래한량춤수련반 / 동래학춤 / 동래학춤 수련반 / 남도민요와 판소리 / 민요장구반 / 장구장단반 / 영남입춤반 / 장고춤반 / 산조춤반

[동래민속예술축제]

- 일 시 :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
- 내 용 : 중요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및 시지정무형문화재 동래학춤, 동래지신밟기, 동래고무, 동래한량춤 원형 공개 공연

일요상설공연

동래 전통 민속 예술 한마당

- 일 시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1시
- 공연프로그램

공연일자	시 간	공연프로그램
9월29일(일요일)	13:00 ~ 13:30	동래지신밟기
	13:31 ~ 13:45	동래학춤
	13:46 ~ 14:15	진도 씻김굿
	14:16 ~ 14:30	동래고무
10월27일(일요일)	13:00 ~ 13:40	동래야류
	13:41 ~ 13:55	동래한량춤
11월24일(일요일)	13:00 ~ 13:15	동래고무
	13:16 ~ 13:30	동래학춤
	13:31 ~ 14:00	동래지신밟기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온천장역 및 명륜역하차 도보 15분

일반버스

36, 46, 49, 50, 51, 100, 110-1, 179, 183, 189 온천입구 하차 도보 600m

마을버스

마을버스 1-1번, 7번

자동차

- ※ 금정구방면 : 금정구청→GS마트→부산대 입구에서 좌회전(부곡동방면) →두꺼비 주유소→온천입구 사거리에서 좌회(600m)
- ※ 해운대방면 : 안락교차로→명장정수장방면(동호주요소에서 좌회전) →용인고등학교 방향
- ※ 만 덕 방 면 : 미남교차로→내정교차로 좌회전→온천장사거리에서 우회전 →온천장이구사거리 직진

■ 문의전화 ☎ 051-555-0092 / 051-556-0192

FAX 051-556-2786

■ 홈페이지 www.pusanminsok.or.kr

■ 메일주소 92@pusanminsok.or.kr



본 사업은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부산동래무형문화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4호 동래지신밟기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야류보존회 / 동래학춤보존회 / 동래지신밟기보존회 / 동래고무보존회 / 동래한량춤보존회

동래야류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1967. 12. 21 지정)

동래야류는 한국 가면놀이 중 남부형인 야류, 오광대 계열이다. 초계 밤마리에서 대광대패들에 의해 놀았던 탈놀음이 낙동강 동쪽으로 전파되어 신반, 진주, 마산(창원), 수영을 거쳐 동래로 유입되어 동래의 지역성이 진하게 배어 있는 도시형 탈놀이이다.



동래야류는 한국 전통 연극양식으로 가무악이 복합된 연희형태이며, 서민들이 양반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 골계적인 재담과 몸짓으로 양반들을 희롱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내는 내용이다. 해학성이 진하게 깔려있고 유식한 문장으로 재담을 풀어내어 격조 있는 멋으로 연희를 풀어가는 묘미가 특징이다.

웅박캉캉 굿거리장단에 덧배기춤과 배김사위가 일품이며, 특히 말뚝이 재담과 말뚝이 탈은 동래야류의 가장 큰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행과정은 모두 다섯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군무과장 2.문둥이과장 3.양반과장 4.영노과장 5.할미 영감과장 이다.

동래야류는 현재 부산의 10가지 자랑 중 하나로 공식 선정되어 있다.

예능보유자 및 전승자

예능보유자 | 이도근, 김경화

전 수 조 교 | 정영배, 백정강, 이순규, 손심심, 문종수, 이춘실

이 수 자 | 신상식, 이기원, 이돈희, 김익현, 이미경, 오미숙, 한정숙, 김순선, 김수근, 김영도,

조용황, 박민순, 정진화, 박성호, 정재욱, 윤현준, 정현섭

전 수 생 | 강태욱, 김연희, 김재규, 김이대, 옥금주, 조도근, 윤정미, 이동현, 이수진, 김덕상

자제전수생 | 이해철

동래학춤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1972.9.19 지정)

동래학춤은 동래지역 한량들이 즐겨 추었던 동래 덧배기춤의 한 유형이다. 동래는 예로부터 지형이 학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학소대, 학암, 학란마을 등 학에 관한 지명들이 많았다. 또한 천연온천과 함께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고, 동래 사람들도 가무에 능하고 풍류를 즐겨 놀이 문화가 풍성한 곳이 되었다.



동래학춤은 학의 사실적인 모의무가 아니라 그 춤사위가 마치 학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학춤이라 하였고, 자연미와 예술미가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래학춤은 동래 덧배기춤 특유의 멋으로 승화되어 예술적으로 표출된 춤으로 기품과 격조가 있는 대표적인 민속춤이다. 우아하면서 소박한 춤사위, 그리고 배김사위와 춤의 상징성이 동래학춤의 특징이다. 이춤은 흘춤으로도 추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군무로 연희되고 있다. 특징적인 춤사위는 일자사위, 소쿠리춤사위, 옆걸음사위, 모이줍는사위, 소매견움사위, 배김사위(겹배김사위, 뒷배김사위, 좌배김사위) 등이다. 복식은 양반들의 출입복인 흰바지저고리에 흰도포를 입으며 반주음악은 사물악기(징, 팽과리, 북, 장구)에 구음을 얹어 굿거리장단으로 연주한다.

예능보유자 및 전승자

예능보유자 | 유금선

보유자후보 | 김태형, 이성훈

전 수 조 교 | 김정영, 이광호, 김향옥

이 수 자 | 윤정애, 백정호, 임형석, 이치중, 백금선, 이나현, 김신영, 구옥자, 허애명, 박태용, 배철희, 공정희, 강기화, 김영숙, 김정원

전 수 생 | 강봉훈, 황동하, 신지선, 송명자, 강은미, 김옥천, 한선미, 조진희, 문정숙, 홍선희

자제전수생 | 주영란, 오덕자, 조복자, 최연수, 윤귀자, 탁주미

동래지신밧기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4호 (1977.12.11지정)

동래지신밧기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초부터 보름 사이에 동래에서 놀았던 마을 공동체 놀이로서, 매굿, 걸궁, 마당밧기놀이, 지신놀이 등 주술적 축원에서 발원된 동래의 토속적 민속놀이이다.



풍물을 치면서 춤과 풀이, 해학적 몸짓으로,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과 풍농을 빌고 제화초복(除禍招福)을 기원하는 토속신앙이 바탕을 이룬 제의적 놀이 형태이다. 동래지신밧기의 특징은 타 지방처럼 화려한 채복을 입지 않고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으며 삼색띠는 착용하지 않고 고깔을 쓴다.

마당놀이에서 소고춤과 북놀이, 그리고 잡색들의 해학적인 연희가 돋보이며, 메나리조의 지신놀이 선율과 사설내용 및 짜임새가 독특하고, 굿거리장단과 덧배기춤이 강조되는 동래 지역성이 강한 놀이다.

동래지신밧기 연행과정은

1. 주산지신놀이
2. 당산지신놀이
3. 샘(우물)놀이
4. 각 가정 지신놀이

- 대문풀이 · 마당놀이 · 대청지신놀이 · 큰방성주(成造)놀이
- 각방치장놀이 · 조왕지신놀이 · 샘(우물)지신놀이
- 장독지신놀이 · 도장(곡간)지신놀이 · 마굿간지신놀이
- 뒷간지신놀이 · 삼짝(대문)지신놀이놀이 · 주신(酒神)놀이로 이루어져 있다.

예능보유자 및 전승자

예능보유자 | 김영수, 이주희, 서한선, 장재근, 심옥자

보유자후보 | 김준호, 박지영

전 수 조 교 | 이선구, 강옥영

이 수 자 | 김용대, 이정남, 이수영, 임대훈, 손인식, 한옥이, 오상훈, 임동여, 김태근, 최윤자, 조현구

전 수 생 | 김명철, 이유미, 송은희, 심미란, 이국진, 유창오, 허종오, 김대길, 안용진, 이동훈

자제전수생 | 차성호, 이선혜, 김선순, 최두필, 박봉업, 권의현

동래고무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1993. 12. 31 지정)

동래고무는 고려초기 여악(女樂)을 관장했던 교방청(敎坊廳) 여기(女妓)들에 의해 연행되었던 향악정재(鄕樂正才)인 무고(舞鼓)가 동래관아(東萊官衙)의 교방으로 전래되면서 관아에 예속된 기녀들에 의해 동래고무라 칭하여 연례무로 연행되었던 북춤의 일종이다.



이 춤은 궁중 정재가 동래관아로 전래된 춤이기 때문에 교방청 계열의 법춤으로 엄격한 춤의 규범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중정재의 영향을 받아 품위를 중시하며 우아함과 화려함 그리고 섬세한 춤사위가 특징이다.

중앙에 큰 북을 놓고 원무 4인이 나란히 등장하여 북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이어 협무 4인이 나오면서 지화자를 가창하면 원무는 그 지화자에 맞추어 북을 치면서 북 주위를 돌며 북춤을 춘다.

손을 여미는 사위, 단아하고 섬세한 디딤법, 나비가 하늘거리는 것 같은 아리따운 팔사위, 북을 치는 활달한 북춤사위 등 자연스러우면서도 유려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능보유자 및 전승자

예능보유자 | 김은경 보유자후보 | 박순희, 전정숙

전 수 조 교 | 김정애, 김순애, 문임선

이 수 자 | 김무희, 강성희, 윤여숙, 박선홍, 박수진, 조보경, 윤선영, 이희정, 선은숙, 김윤희, 강정아, 하연화

전 수 생 | 이현실, 강미선, 김민경, 장윤경, 민성희, 장경화, 이은영, 송선숙, 송임숙